

명창·명인들이 차려낸 '판소리 밥상'



춘향가(춘향의 비밀코드)



심청가(연꽃으로 핀 효심, 심청의 밥상)



조동달 명창.



흥보가(흥보네 밥상에 담긴 지혜)



수궁가(수궁가에 숨겨진 한식의 비밀)



적벽가(적벽가로 맛보는 한식의 향연)

국악방송 한류 다큐멘터리 '세기의 기행-판소리의 맛과 멋'

“호도독 포도독 매초리탕, 끼꼬오 영계찜, 어전, 육전이며 수란탕, 청포체에다 겨자, 고추, 생강, 마늘, 문어, 전복 붕으로 오려 나는 듯이 괴어 놓고, 전골을 들여라.” 판소리 ‘춘향가’ 중 월매가 이도령을 위해 음식상을 차리는 대목 중)

월매는 예비 사위를 위해 온갖 산해진미 뿐 아니라 궁중음식도 차려냈다. 심청이 눈먼 아버지를 위해 차린 밥상에는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것갈고 김치가 놓였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에는 조선 후기 선조들의 삶의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다. 특히 음식 문화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하다. ‘적벽가’, ‘심청가’, ‘흥보가’ 등 판소리 다섯바탕에 등장하는 전통음식을 재현하는 프로그램이 제작돼 눈길을 끈다. 눈과 귀가 모두 즐거운 프로그램이다.

국악방송이 특별 제작한 한류 다큐멘터리 ‘세기의 기행-판소리의 맛과 멋’(5부작)은 내로라하는 명창들이 전국의 음식 명인들과 재현한 최초의 ‘판소리 밥상’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여행의 길잡이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고법 이수자이자 방송 MC로도 입담을 자랑하는 소리꾼 윤진철씨다.

소리를 하는 이는 조동달(판소리 수궁가 전수 조교), 김수연(판소리 적벽가 전수 조교), 김수연(춘향가 전수조교), 김성애, 송재영 명창

민경숙·김옥심 남도 명인 참여

판소리 5마당 전통음식 재현

국악방송 홈페이지·푸드-TV 시청



해설을 맡은 소리꾼 윤진철씨.

등 5명이다. 국악방송측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풍성한 소리꾼을 찾은 후 가장 적합한 소리꾼을 섭외, 작업을 진행했다.

여기에 윤숙자 한국전통음식소장, 민경숙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의례음식장, 기순도 전통식품 명인 제35호, 전라도 김치명인 김옥심씨 등 전국의 음식 장인들이 판소리에 등장하는 음식을 직접 재현한다.

김수연 명창의 소리로 시작되는 1부 ‘춘향가-춘향의 비밀 코드’에서는 윤숙자 교수가 신선로 등 ‘월매의 밥상’을 그대로 재현한다.

“한술씩 덜 잡수시고 십시일반 주옵시면 부친 공양을 허갸내다 듣고 보는 부인들이 누아니 슬퍼하리 그릇밥, 김치, 장을 애끼얹고 후히 주며” ‘심청가’ 중 심청이 아버지 봉양하는 대목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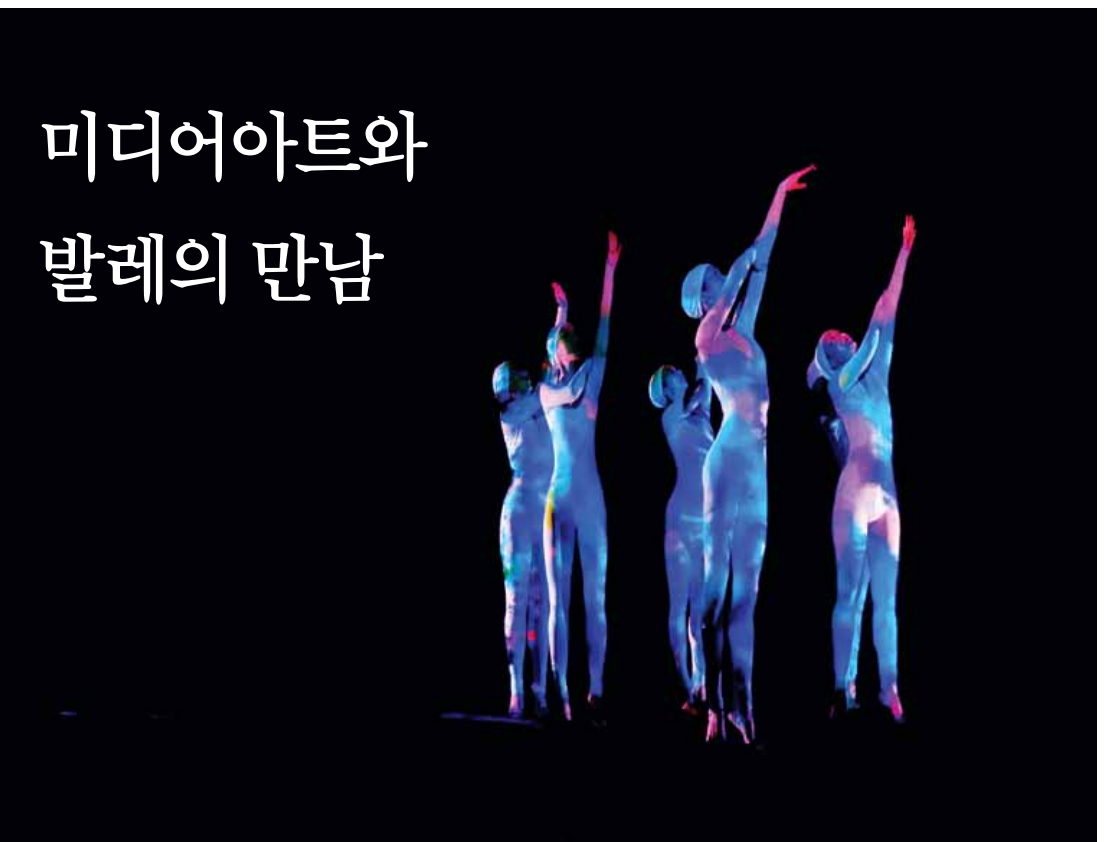
2부 ‘연꽃으로 핀 효심, 심청의 밥상’에서는 송재영의 소리와 함께 배추가 도입되기 전 소금에 절인 채소 김치부터 전라도 지역 양반들이 먹던 반지 김치, 왕의 밥상에 오르던 비늘 김치를 김옥심 명인이 재현한다.

3부 ‘흥보가-흥보네 밥상에 담긴 지혜’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어머니, 나는 서리쌀밥에 육개장국 한 그릇만 먹으면, 어머니 나는 호박떡 한 시루만 해주시오, 호박떡은 더위도 달고, 식어도 달고, 참 맛이 좋지.”(‘흥보가’ 중 아내 탄식하는 장면 중)

‘흥보네 밥상’에서는 흥보네 자식들이 먹고 싶다고 노래한 떡과 육개장을 비롯해 진달래꽃을 따다 지져 먹던 화전에서부터 가을에 추수한 햅쌀로 빚은 전국 8도의 송편, 유명한 ‘화초장 타령’에 등장하는 된장 등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4부 ‘수궁가-수궁가에 숨겨진 한식의 비밀’에는 설렁탕, 용봉탕, 삼계탕 등 각종 보양식을 소개하며 5부 ‘적벽가로 맛보는 한식의 향연’에서는 군사들이 마셨던 다양한 술과 잔치 음식을 재현한다.

회당 45분 분량이며 국악방송 홈페이지(www.gugakfm.co.kr)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케이블 방송 FOOD-TV에서도 방송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진시영·조가영 협업작 '뉴폼'의 한 장면.

진시영-조가영 콜라보레이션... 17일 나주혁신도시 한빛홀

국립현대미술관·美산안토니오시 공연

미디어아트와 발레가 만났다.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국내외 명성을 쌓은 진시영과 광주시립무용단 수석단원 출신 조가영이 17일 오후 7시30분 나주혁신도시 한국전력 한빛홀에서 콜라보레이션(합동 공연)을 무료로 펼친다.

이 둘의 만남은 무용수가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영상은 무대 위에서 상영되는, 단순히 서로 다른 분야의 예술이 한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다. 두 장르를 서로 융합해 무용수의 몸짓에 따라 영상과 빛이 움직이거나 무용수가 빛을 발하는 새로운 개념의 퍼포먼스를 탄생시켰다. 그래서 공연명도 ‘뉴폼(New Forms·새로운 형식)’이다.

약 한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뉜다.

1부에서는 조 안무가가 발레와 국악이 어우러진 작품 ‘무늬’를 선보인다. 진 작가의 패턴 영상과 함께 애절하면서도 신명나는 삶의 ‘희로애락’을 표현한다.

총 4개의 장으로 이뤄진 2부는 비디오 프로젝션·와이파이로 제어되는 LED 등을 통한 다양한 실험으로 이뤄졌다. 1장 ‘집에서 점으로’에서는 영상에서 반딧불이 집합체가 하나둘씩 켜지고 꺼지고를 반복하면

서 무용수의 의상에서도 LED 빛이 함께 동조한다. 2장 ‘색의 반란’은 강강술래, 선사시대 동굴 속 윤무(輪舞) 같이 길고 격렬한 춤이다. 구불구불한 선, 줄지어 반짝이는 점들이 지속적으로 무용수의 몸과 스크린 구조물에 비디오텍스(mapping) 기법으로 표현된다.

중국 설화 ‘월하노인(月下老人)’을 모티브로 한 3장 ‘선의 압호’는 인연, 업,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로 풀어간다. 빨간 선들이 무용수의 몸짓에 의해 얽혀지고 풀어지면서 조형적인 이미지가 점점 발전되어 간다.

4장 ‘빛의 흐름’에서는 이번 공연을 위해 특별히 개발한 LED 의상이 선보인다. 남녀 무용수의 움직임에 의해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동시에 경험하도록 시도했다.

진 작가는 “이번 공연은 장르 간의 경계를 넘어 미디어아트·춤·음악·과학·기술이 융합된 다원예술 작품이다”며 “한층 더 진화한 인터랙티브(상호작용) 미디어 퍼포먼스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폼’은 2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10월 23~24일 광주 자매도시인 미국 샌 안토니오시 등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문의 070-7556-065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여성플라자 재능기부 나눔 공연 내일 전남여성플라자 공연장

전남여성플라자가 문화 취약 계층과 함께 하는 재능기부 나눔 공연을 진행한다. 16일 오후 4시 전남여성플라자 2층 공연장.

‘걱정 말아요 여러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성, 세대, 장애 등 편견과 차별을 넘어 차이의 인정을 통해 함께 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연극배우 정권숙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행

복누리 주부연극단의 여성주의 뮤지컬을 시작으로 ‘꿈꾸는 작은새’의 오카리나 연주를 비롯해 어쿠스틱 인디 밴드 ‘조아브로’, 성악 남성 중창팀 ‘라이징 스타’, 대학 댄스 그룹 ‘코마’ 등의 공연이 이어진다.

또 서제동씨의 사회로 ‘걱정 말아요, 여러분!’ 토크쇼도 열린다. 문의 061-260-73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사리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 전 동신대학교수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전, 공휴일은 오전진료

KT, 중앙초교, 금남로, 개령동, 한화생명, 구.한미소핑, 동부소방서